

친명 후보 사퇴·전략 선거구...광주 서구갑·을 총선판 요동

민주당 서구갑 강위원 특보 출마 포기...지지세 이동 따라 판세 출렁 서구를 예비후보들, 중앙당 전략공천 가능성에 '아전인수' 식 전망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과 서구를 지역의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광주 서구를 선거구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강위원 당 대표 특보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공모를 시작하는 동시에 전략 선거구로 선정된 17곳을 발표했다.

전략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 7곳과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 10곳 등 17곳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를 지역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서구권이 전략 선거구로 선정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예비후보들은 향후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과 여성 전략 공천 지역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바다 민심을 다져왔던 일부 예비후보들은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공관위로 넘긴 공천 규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상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공관위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날 광주 서구를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김광진 예비후보는 전략 선거구 선정에 대해 "지난 11일 중앙당 총선 기획단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상 우선 공천을 제안했고, 청년·여성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제안했다"며

"중앙당이 밝힌 대로 서구권이 청년·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비례로 국회에 입성했던 만큼 또 다시 중앙당에서 청년 전략공천 대상으로 삼겠냐며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여성 후보 우선 공천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당헌·당규상 (서구권)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며 서구권에 전략 공천이 실행될 경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김경만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달라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전략 선거구는 광주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한 사람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는 광주·전남지역 대표적인 '친명' (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사실상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향후 강 특보 지지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경선 판도가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공식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면서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살아온 삶에 주목해 주신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여겼지만 여기서 멈추겠다"며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 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특보는 오는 4월10일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했지만, '성추행 2차 가해' 논란이 되면서 출마 결심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왼쪽)과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장 위원장이 15일 대구시장 김대중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동공약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제공)

민주 광주·대구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총선 전 통과' 공동공약 발표

대구서 협약식...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 국회결의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동서 화합과 영호남 연대를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은 15일 대구시장 김대중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동공약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이병훈 광주시장 위원장, 강민구 대구시장 위원장과 핵심 당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학생운동, 대구 2·28학생운동과 국제보상운동 등을 언급하며 광주·대구 정신과 화합, 단결, 지역주의 타파 등을 다짐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대구와 광주의 500만 인구는 정치인들의 동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마음의 거리감과 분열의 선택을 계속해 왔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마음을 이어 '더불어' 미래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 공약은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총선 전 국회 통과 ▲2038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국회 결의안 추진 ▲광주 인공지능(AI) 국가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대구 로봇테스트플랫폼 활성화 ▲아시안게임 대비 e스포츠 광주·대구 공동 운영 활성화 ▲대구 2·28과 광주 5·18 행사 교류 확대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이다.

달빛철도 건설 기본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의원 261명이 발의했지만 타당성 조사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광주·대구시장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 늦어도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정을 띄우겠다"며 "달빛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의 기자회견 추진과 1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성명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시장 위원장은 "정치권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화합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구 대구시장 위원장은 "협약식은 광주와 대구의 화합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동서 화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술인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

새 양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 농해수위 상정

국힘 "날치기 심사" 반발 퇴장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

두 매입한다'는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요건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윤 의원이 들어가면서 이날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달곤 의원은 퇴장에 앞서 윤 의원의 안건조정 위 참여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속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선관위, 총선 종합상황실 개소 선거관리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

터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단계별로 인원을 확대해 9월 33명으로 편성·운영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우편 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건·사고 대응 및 처리 ▲선거 장비 및 물품 수급·운영과 헬프 데스크 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선관위는 개소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활용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처음 공개해 시연했다. 신형 투표지분류기는 최장 46.9cm 길이의 투표지(34개 정당까지 게재)를 분류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노태우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종합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오늘을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서항동)